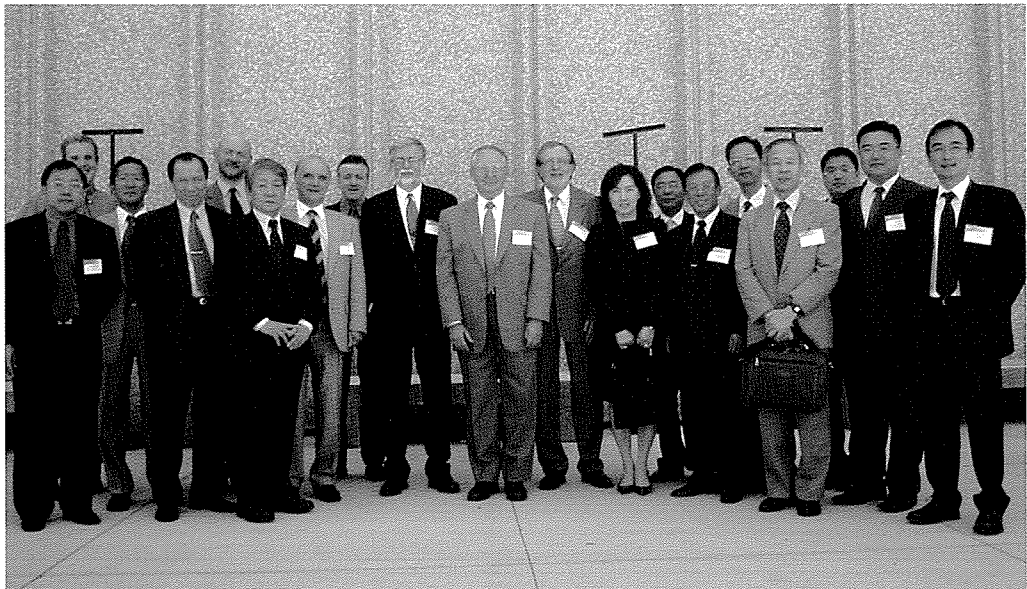


# ICOIA 연차회의 및 SPIE's Annual Meeting을 참가하고

전영복 /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ICOIA 연차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

## ■ 제9차 ICOIA 연차회의 (9th ICOIA Annual Meeting)

ICOIA(International Coalition of Opto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는 세계 광선진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광전자산업 관련 협회들의 협력체로 지난 1996년 7월 미국, 일본, 영국(스코틀랜드), 대만의 4개국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이후 2001년 한국과 싱가포르가 추가되어 6개국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03년 호주, 홍콩, 독일이 추가되어 현재의 ICOIA를 구성하게 되었다.

각국의 대표 기관을 보면 한국, KAPID(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미국, OIDA(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일본, OITDA(Optoelectronic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영국, SOA(Scottish Optoelectronics Association), 대만, PIDA(PHOTONICS Industry&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 싱가포르, PAS(PHOTONICS Association in Singapore), 호주, APIF(Australian Photonics Industrial Forum), 홍콩, HKOEA(Hong Kong Optoelectronics Association), 독일, OpTech-Net이다. 이들 9개 기관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일부 협회는 자국내 다수의 지역 협회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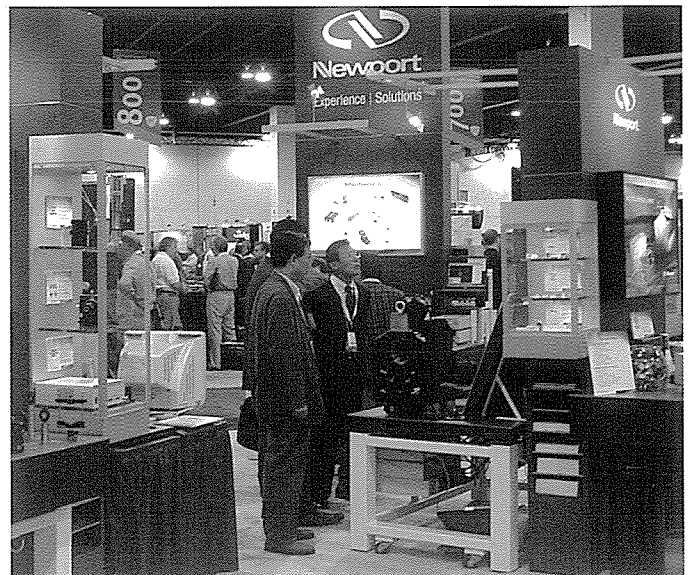
▶ICOIA 연차회의에 참가한 각 국 대표와의 업무협의

1996년 처음으로 개최된 동 회의는 금년 제9회째를 맞았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4개국에서 9개국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ICOIA의 설립 목적은 “세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광산업의 번영과 성장을 위한 협력”이며 이를 위해 각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광산업 교류협력체이다. ICOIA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광산업 관련 협회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 1개의 협회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구성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회원가입이 승인된다. ICOIA의 조직은 매년 동 회의를 유치하는 국가에서 의장을 맡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는 2000년 설립이후 동 협력체에 가입하기위해 수많은 노력과 기존 회원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1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6차 4개국 연차회의에 공식으로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어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동 6차 회의에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2002년 개최예정인 제7차 회의의 한국 유치를 달성하게 되었다. 동 연차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광산업 시장 및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각 국가간의 교류협력을 협의하게 되고 세계 공통의 현안 문제에 서로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다. 예로서 지난 2002년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광산업의 분야에 대한 분류를 통일하여 새롭게 정립하기

도 했다.

금년에는 미국 OIDA의 주최로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로키산맥의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중서부 지역인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콜로라도는 미국내 3대 광산업집적화단지인 콜로라도 광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광주에서 출발하여 24시간만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은 인천 국제공항의 모태가 되었다는 덴버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덴버 다운타운으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었다. 회의 개최 전일인 28일에는 29일과 30일 개최되는 협의회의 준비와 동 기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개별기관과의 미팅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29일 점심식사를 시



▶전시장



▲ ICOIA 연차회의

작으로 개최되는 동 회의의 회의장에 들어서자 작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과 재회의 기쁨으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회의에 임하였다.

참가 국가가 많아진 관계로 회의를 이틀에 걸쳐 개최하게 되었으며 첫날인 29일에는 각국의 광산업관련 시장과 활동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각 국가에서 전망하는 성장분야와 기술로드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

금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현재의 광전자 분야, 즉, 광통신, 광저장장치, TFT-LCD 등은 이미 과거의 산업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아직 시장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OLED, 자동차용 광전자, 바이오포토닉스 등을 성장 전망분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이룰 중요한 분야임은 명백한 것이었으나 다수의 국가에서는 현재기술의 시장 확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기다림 보다는 빠른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시장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FTTH(전광통신)는 일본, 홍콩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였다. 아울러 고효율/백색 LED를 제외한 일반 LED분야 또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현재의 광산업으로서만 인식을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은 물론 관련 광산업체들도 빠른 광산업의 기술진보에 발맞추어 현재 기술의 시장 확대만을 기대하지만 말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갈 신기술 분야로 재빨리 선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EPIC의 가입신청과 제10차 연차회의의 개최지를 결정하였으며 ICOIA 내에 조명용 LED관련 표준화 그룹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공식일정 중의 하나인 견학일정으로 콜로라도 볼더시에 위치하고 있는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를 방문하였다. NIST는 1901년 산업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상품의 질과 생산과정을 현대화하며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상무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이다. 특히 볼더에 위치한 연구소에는 Photonics관련 많은 연구실을 소개하고 있는바 미국의 종합적인 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를 엿볼 수 있었다.

#### ■ Int'l Symposium and Exhibitio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동 ICOIA 연차회의의 개최 시기에 연이어 덴버에서는 SPIE(국제광기술학회)주최 CPIA(콜로라도 광산업협회) 주관으로 8월 2일부터 6일까지 광학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동 심포지엄은 약 200개 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회도 병행 개최 하였으며, 아울러 SPIE의 연차회의도 개최되었다. 금번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5개분야로 Remote



▶ 심포지움 행사장

Sensing and Space Technology, Optical Systems Engineering, Radiation Technologies, Signal and Image Processing and Sensors, Nanotechnology and Organic Materials에서 63개 컨퍼런스로 구성되었다. 광전자 및 광학관련 가장 기본적인 Science와 Technology에 대한 심포지엄임을 볼 수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한국의 광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권오석 박사님을 만났으며 한국에서 참관한 박대운 박사를 비롯한 한국광학회 임원들과 SPIE 한국지부 임원과도 만나 한국 광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3일부터 개최된 전시회에는 약 200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대다수의 업체들이 주로 광학 및 계측기기 등 기초분야 제품을 전시하였다. 전시장은 오전부터 매우 많은 참관자들로 붐볐으며 참가업체와 참관자 모두 기존의 전시회와는 달리 매우 활기찼으며 광산업의 회복기를 반영하는 듯 열띤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금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구성된 전시장 내 세미나 행사장이었다. 기존 행사에서는 세미나 행사장(컨퍼런스 행사장은 별도로 위치)과 전시장

이 각각 구분되어 별개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금번 행사에서는 마치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개최하고 있는 Photonics Korea에서 신기술신제품 세미나를 전시장 내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본 판 듯이 전시장 내 오픈된 세미나장을 구성하여 참관자와 청중을 한 곳으로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대표단은 8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8월 4일 덴버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한국으로 향하였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ICOIA 연차회의에서 느꼈던 현재 시장의 확장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발 빠른 개척과 함께 틈새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광산업체에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실감하였으며 한국광산업진흥회 역시 현재 업체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의 확대 노력을 적극 지원함과 함께 새로운 기술 정보는 물론 시장의 진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산업체에 제시하여야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금번 참가한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매우 침체되었던 광산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